

## 고려말 柳濯장군과 여수

송 은 일\*

- I. 머리말
- II. 유탁장군의 가계와 활동
- III. 유탁장군과 ‘장생포가’ 그리고 여수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유탁의 가계는 시조대부터 현 고흥지방의 지배세력이었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조부인 청신의 활약에 힘입어 고려의 명문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유탁은 이러한 배경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40대 중반에 정승에, 공민왕대에는 시중으로 재임하였다. 그런데 유탁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던 신돈이 처형되자 그 黨與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유탁이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으며 국왕에게도 저항할 수 있었던 만호패마저 가지고 있었던 것 등으로 인해 공민왕을 불안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말 여수지역은 해양환경 등의 이점으로 해상교류·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여수지역에서도 장생포는 사회·경제·행정·군사적인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곳에 왜구가 수시로 침범해왔었다. 때문에 장생포와 그 일

---

\*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 sei0005@naver.com

원 주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의 출현을 간절히 기원했었다. 그러던 중 유탁이 등장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등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 장생포가의 탄생은 그러한 유탁을 존송하는 차원에서 군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널리 회자되었다. 따라서 장생포가는 당시 여수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유탁과의 관계 그리고 주민들의 처지 등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려주는 노래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

유탁, 고려, 공민왕, 여수, 장생포가

## I. 머리말

유탁장군(이하 유탁)은 고려 말 무신으로 충숙·충혜·충목·충정·공민왕에 이르기까지 5조에 걸쳐 출사하였으며, 正史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27세에 감문위 대호군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최후를 마감해야 하는 일까지 당하였다. 이를 보면 유탁은 고려인으로서 고려의 역사와 영욕을 함께 한 몇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여수와 깊은 관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유탁이 전라도만호 시절 여수 장성(생)포 일원에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으며, 그 계기로 그 지명을 딴 속악 “長生浦(이하 장생포가)”<sup>1)</sup>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유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유탁의 행적과 연관지어 당시 여수 지역사회의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하였다. 기존에 유탁이나 그의 행적과 연관지어 당시 여수 지역사회의 일면을 본격적이고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장생포가와 동동의 관계성과 장생포가의 창작 배경을 알아보는 가운데 그의 행적을 소략하게 언급했거나 장생포가에 내재된 정치·사회적 의미를 알아보는 경우는 있다.<sup>2)</sup> 그런데 이 연구성과들은 유탁은 물론이고 그와 연관지어 당시 여수 지역사회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

- 
- 1) 『고려사』 권71 약지;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280~281쪽. 우리가 알고 있는 ‘장생포가’는 장생포가(『고려사』 권71 약2 속악 장생포), 장생포(『신증동국여지승람』 40 순천도호부 산천 장성포 협주), 장생포등곡(『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동국통감』 권46 공민왕 원년조), 장릉성곡(『승평지』 상 산천); 장생곡(『강남악부』 고려조), 장생포곡(『증보문헌비고』 106 약고17 속부악1 고려악 속악 장생포)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생포가’로 통일한다.
- 2) 김준옥, 앞의 논문(1995), 284~285쪽; 「고려 시대 가요 「장생포」의 창작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62~63쪽; 변동명, 「고려말 여수의 장생포가」,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150~159쪽.

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유탁의 가계와 행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 그의 가계를 들추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가계와 출신의 문제는 사회적 특권이 세습적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성장이나 그 이후 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어 그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력 정치인의 행적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이를 통해 당시 정치의 흐름의 일부분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탁의 활동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장생포가와 관련된 초기 기록에 대한 사실성과 객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관련 기록들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다음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토대 작업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유탁이 어떻게 하여 여수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장생포가는 어떠한 연유로 탄생되었는가를 그의 활동에 비추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당시 유탁과 여수 지역민과의 관계 내지는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장생포가의 탄생 및 유포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 당시 변방에 소재한 여수 지방사회의 동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생포가가 유탁과 관련이 깊다는데 착안하여 그의 활동과 장생포 소재지인 여수와의 관계성 및 사회상을 추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장생포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한 다음 유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 여수 지역민과 관계 내지는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단계적 서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첫 번째 논의 단계인 장생포가의 분석은 현재 그 곡조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였다는 것을 첨언한다. 이 글을 통해 유탁은 물론이고 고려말 여수 지역민의 삶과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II. 유탁장군의 가계와 활동

이번 장에서는 유탁의 가계와 행적에 대해서 알아본다.<sup>3)</sup> 유탁의 본관은 고흥이다. 그는 고려 1311년(충선왕 3)에 부 有奇와 밀양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흥유씨 시조는 柳英으로 유탁의 9대조이며, 문종조에 부곡리 혹은 호장을 지냈던 인물이다.<sup>4)</sup> 그가 역임했다고 하는 부곡리 혹은 호장은 3세인 光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 전기 부곡리는 부곡의 향리로 생각되며, 이 직책은 지방사회에서 행정, 조세 수취, 각종 제사, 불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성종대에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향리직은 지방사회에서 국가의 대행자와 지배층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런데 이 향리직은 호장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성종대 시기에는 호장으로 별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따라서 일부 기록에 유탁의 선조들이 호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같은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고려 초기 호장은 중앙에 진출하지 않은 諸豪族이 자신의 기반이 있던 군현에서 지방통치체제의 하나인 향리제를 통해 지배세력으로 정착하였다. 호장을 할 수 있는 집안은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몇몇 가문에서 세습하고 있었다. 이 호장들은 지방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으로서 지방통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sup>7)</sup> 이들은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등에서 행정을 전담했으며, 수령이 파견된 주현에서도 부세·역 호구 등과 관련

3) 유탁의 가계와 행적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 『고려사』 권126 열전 권제39 간신2;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5) 이명선, 「고려전기 향리의 위상과 기능」, 『한국어 문화』 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182~202쪽.

6) 김갑동, 「고려시대의 호장」,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1998, 194쪽.

7) 강은경, 「고려 후기 호장층의 변동과 양반·향리호적의 정리·국보호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9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41~42쪽.

된 업무를 보았다. 이 당시 고흥지역은 장흥에 속해 있는 부곡이었던<sup>8)</sup> 관계로 부곡리 혹은 호장이었던 유탁의 선조들이 이 지역의 행정적인 업무 등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탁의 가문은 시조 때부터 현 고흥지방 지배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고흥지방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4세인 明攄이 상장군의 무관직을 제수받으면서 중앙무대에 진출한 것으로 같으며, 유탁의 가계가 일약 급성장한 것은 그의 조부 淸臣 때부터였다.

청신은 고려 고종 대에 현 고흥에서 태어났으며, 1274년(월종 15) 그의 나이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sup>9)</sup> 이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24세에 낭장에 제수되었다. 1285년(충렬왕 11) 을유에는 청신의 외교적 공로로 그의 출신지 고이부곡이 고흥현으로 승격되어 監務가 파견되었다.<sup>10)</sup> 이때 고흥이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청신의 공적이다. 그는 1287년(충렬왕 13) 대장군에 올랐고, 1294년(충렬왕 20)에는 우승지, 그리고 1297년에는 동지밀직사사감찰대부에 제수되었다. 1298년 충선왕 즉위년에 知密直 左常侍判密直司事に 올랐다. 청신은 1305년에 충렬왕을 호종하고 원나라에 갔었는데, 이때 원나라에서 왕을 잡아두자 왕의 환국을 원의 조정에 간청하였다. 이를 본 원의 성종이 청신의 충의를 높이 평가하여 청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청신의 원래 이름은 庇였는데 이때부터 청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청신은 1307년 4월 충렬왕이 환국하던 해에 都僉議贊成事判軍簿司事に 제수되었다. 아마 충렬왕 환국에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310년(충선왕 복위 2)에는 도검의

8)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고흥현.

9) 『세종실록』에 유비(청신)를 ‘譯語行首’라 한 것을 보면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고흥현) 그는 역과에 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유청신이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기록과(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역과에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연구성과가 있어(이남복, 「유청신과 그 사료에 대하여」, 『부산사학(역사와 경계)』 9, 부산경남사학회, 1985, 130쪽) 참고된다.

10)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고흥현.

정승을 제수받았다. 이때 고흥부원군에 봉해지면서 왕으로부터 옥대를 하사받았고 宣忠同德佐理翊祚功臣에 책록되었다. 그가 이렇게 승진하고 공신록까지 받게 된 것은 충선왕 즉위에 상당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321년(충숙왕 8)에 청신은 7명의 신하와 4자인 기유 즉 유탁의 부와 함께 왕을 호종하고 원나라에 들어갔다. 이때 충숙왕이 원에 들어간 것은 충선왕으로부터 심양왕의 지위를 물려받은 왕고가 왕위 찬탈을 꿈꾸고 원나라에 무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숙왕은 5년간 원나라에 머무르다 1325년(충숙왕 12) 귀국하였다. 청신은 이때 충숙왕과 함께 환국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며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1329년(충숙왕 16) 6월 24일 타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런데 청신의 행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입성책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입성책동은 청신이 『고려사』 간신전에 실리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관련이 있다는 입성책동은 충선왕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충선왕 자신이 주도했을 수도 있다.<sup>12)</sup> 충선왕은 입성되어 고려의 위상이 약화 되더라도 그의 신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신은 역관으로서 원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으나 특별히 원의 이익에 편승한 부원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가 간신전에 수록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신이 간신전에 수록되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청신의 출신이 미미한데도 높은 관직에 올랐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는 연구성과가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신분제가 엄격한 고려사회에서 부곡 출신의 청신이 국왕 측근이 되어 최고 관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였고, 때문에 청신은 그들의 시기와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

11) 이상 청신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 권126 열전 권제39 간신2: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法社, 1995: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을 참조하였음.

12) 이정신, 「고려 후기 입성론과 국왕의 역할」, 『한국사연구』 1-179, 한국사연구회, 2017, 221~236쪽.

는데, 충숙왕대 들어서서 그가 국왕의 신임을 잃고 권력이 약화되자 청신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의 견제가 있었으며, 나아가 무고함까지 얻었다는 것이다.<sup>13)</sup>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신이 그렇게 된 것은 조선시대 사관들이 고려 정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려사』의 편찬 원칙과 반원친명의 의리명분, 사대부 중심 역사 서술의 입장을 가졌던 조선시대 사관들의 잘못된 시각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sup>14)</sup> 유청신이 간신이었다면 당대 名儒였던 李穡이 “有重名至元間”이라고<sup>15)</sup>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신의 자 유기와 손자 유탉이 고려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조선초에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고 공신으로까지 책록되었다는 것도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여하튼 『고흥유씨대동보』 청신전에 의하면 그는 1393년(태조 2)에 영의정에 증직되었다고 한다.<sup>16)</sup> 이 증직은 조선 태조 이성계와 연관이 있던 유탉과 조선 초기 고위 관직을 지냈던 손자 濕의 영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태조의 꿈에 유탉이 나타나 아들들의 출사를 부탁했다는 것은<sup>17)</sup> 고려말 유탉과 이성계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니와 이것으로 인해 태조 이성계가 청신을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신의 증손자 습 즉 유탉의 아들이 조선초에 고위 관직을 지내고 정치적으로 크게 활약하였다는 것도 청신이 영의정으로 추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8)</sup>

---

13) 이남복, 앞의 논문, 13~17쪽; 이정신, 「고려후기의 역관」, 『한국중세사연구』 1-38, 한국중세사학회, 2014, 396쪽.

14) 이남복, 앞의 논문, 13~17쪽; 이법직, 「원 간섭기 입성론과 유청신」, 『역사교육』 81, 역사교육연구회, 2002, 133~139쪽.

15) 李穡, 「眞宗寺記」, 『牧隱文藁』 권1.

16)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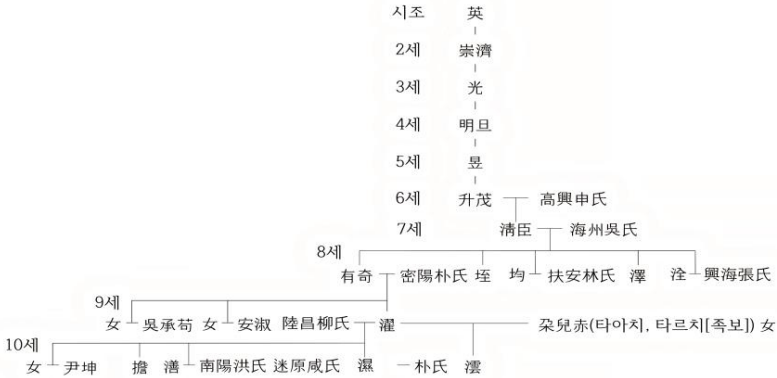
17)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18) 세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청신이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특히 『고려사』에서 그가 간신전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성계와 유탉과의 관계 그리고 유청신의 손자인 습이 조선초에서 고위



청신의 부인은 해주오씨(해주군부인)로 부는 첨의찬성을 지낸 吳璿이다. 청신은 슬하에 洙, 澤, 均, 埜, 有奇 등 5남을 두었다.

〈표1〉 유탁장군 가계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탁의 가계는 시조 때부터 현 고흥지방의 지배세력이었으며, 그 기반으로 조부인 청신의 활약에 힘입어 고려의 명문가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역관으로 시작하여 정2품의 관직까지 오르고 공신록까지 받았다는 것은 청신의 능력이 대단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고려시대 역관의 승진 한계가 정3품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거니와 그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 간섭기 특수한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정치적 능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청신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호도를 전래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sup>19)</sup>

관직에 이어 대단한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그의 영의정 추증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기는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19) 「胡桃傳來事蹟碑」(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胡桃傳來事蹟碑」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119~120쪽.

청신 때에 유탁의 가문은 물론이고 고흥유씨 가문이 명문가로 진입하였음을 살폈다. 이제 청신의 아들 代를 알아보도록 한다. 청신의 장자 滄은 관직이 禮賓尹이었다. 그의 부인은 興海張氏이며, 장인은 시중이었다. 次子인 택은 승지의 관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행적은 찾을 수 없다. 3자 均의 관직은 정현대부 대호군으로 부인은 부안박씨이며, 부인의 부는 추첨의찬성사, 조부는 상호군을 지냈던 인물이다. 4자인 堉은 監役을 지냈고 이후 대선이라는 범명을 가진 것으로 보아 승려로 출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자인 유기는 원나라에서 무덕장군 다로가치의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1321년(충숙왕 8) 왕고의 무고로 부인 청신과 함께 충숙왕을 호종하고 원나라로 갔을 때 원나라에서 주었던 벼슬로 생각된다. 유기는 이후 귀국하여 전라도진변만호와 판밀직사사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상이 청신의 아들들에 대한 행적인데 관련 기록이 미흡하여 그들의 행적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탁의 가문은 청신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그의 아들 대에도 당대 명문가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5자 유기의 활약이 청신 못지않았다는 것과, 그 아들들의 통혼 관계가 대부분 고위 관직의 여식들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들의 통혼은 청신의 배경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다. 청신의 아들들의 통혼에서도 당대 청신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유탁은 조부 청신이 일으켜놓은 명문가에서 청신의 5자 유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337(충숙왕 6년) 蔭官으로 원에 들어가 숙위하였으며, 돌아와 감문위대호군에 제수되었다. 그가 출사한 것이나 원에서 숙위의 임무를 맡을 수 있었던 있었던 것은 그의 조부 청신과 부 유기가 원과의 남다른 관계였던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후 고흥군에 봉군되었고, 1342년(충정왕 1)

20)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5~6쪽.

에 都僉議參理, 全羅楊廣道都巡問使로 제수되었으며, 推誠亮節翊祚功臣의 공신록을 받고, 이듬해에 찬성사로 승진되었다.

1344년(충혜왕 5년) 원나라에서 합포만호에 임명되었고, 1352년(공민왕 원년) 경에는 전라도만호가 되었다. 고려시대 만호는 조선시대 일선 수군진의 만호와 크게 달랐다. 이때 만호는 재추급에서 임명되었으며, 전시에나 평시에 고려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만호는 元帝가 만호패를 주었는데 당시에 이것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다. 만호가 존귀한 지위였다라는 것은<sup>21)</sup>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만호는 왕권과 충돌하거나 도전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 충렬왕 재위 기간 金深이 3군을 이끌고 왕의 측근인 吳祜를 체포하기 위해 왕궁을 포위하여 왕에게 압력을 가하였던 예가<sup>22)</sup> 그것을 말해준다. 이런 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만호패 자체가 원제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만호는 국왕과 정치적 마찰이 있을 때 통제할 수도 없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만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습되었다.<sup>23)</sup> 이렇게 보면 유탁이 만호가 되었던 것은 부 유기의 만호패를 승계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sup>24)</sup>

21) 『동사강목』 1 도(하).

22) 『고려사절요』 권22 충렬왕 29년 8월.

23) 이상 고려 만호에 대해서는 변동명,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 121, 역사학회, 1989, 119~134쪽을 참조하였음. 그런데 만호는 한편으로 고려 국왕이 선정 하되 이를 최종 허가하는 것은 元帝가 하였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여기서 최고위 지휘관인 만호의 선정을 국왕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왕이 군 통수권을 장악 하게 된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변동명, 앞의 논문[1989], 113~114쪽). 그러나 김심 사건 등을 보면 그 같은 경우는 실제 실현되기가 어려웠던 듯하다.

24) 공민왕때 유탁이 보유한 만호직이 충렬왕 때와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 짓기 힘들다. 다만 충렬왕대 만호가 국왕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민왕대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겠지만, 그 권한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탁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전라도만호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일이다. 유탁이 선조들의 만호패를 승계하였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유정신의 손자 柳濬이 고려말에 전라도만호부를 세습하는 관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면(『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24일[갑인]) 유탁 역시 그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유탁이 여수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전라도만호 시절이었다. 그가 전라도만호로 재직하였던 시기는 1352년(공민왕 원년)부터 중앙의 찬성사로 복귀하였던 1354년(공민왕 3) 이전까지였다.<sup>25)</sup> 이시기 유탁이 장생포에서 왜구를 퇴치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생포가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유탁은 만호로 복무하던 시기 사졸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군대를 엄숙하게 지휘하여 주둔지 일원 고을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였으며, 군사들과 고락을 하고 왜구들이 다시는 侵寇하지 못하도록 하여 왕으로부터 특별히 교서, 의복, 술 등을 하사받았다.<sup>26)</sup> 그런데 유탁이 전라도만호로 활동하였던 것이 뒤에 정치적 문제가 되어 그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이후 그는 다시 찬성사를 거쳐 1354년(공민왕 3)에 좌승상이 되었고 얼마 후 고흥부원군에 봉군되었다. 그해 원의 홍건적 정벌군으로 선발되어 태사 脫脫의 막하로 들어가 高郵의 도적 장사성을 정벌한 공으로 1356년(공민왕 5)에 문하시랑 중서문하평장사가 되었다. 유탁은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경상도도순무겸병마사로 임명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좌정승에 제수되었다. 이 당시 유탁은 왕을 호종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홍건적을 퇴치하는 공적과 홍왕사난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종공신 1등에 책록되면서 시중으로 승진되었다. 1363년(공민왕 12)에 도첨의정승판전리에 제수되었고 推忠秉義同德輔理翊祐功臣에 책록되었다. 이 해에 반신 최유가 공민왕을 참소하자 원 황제가 그 말에 속아 덕흥군을 세워 국왕으로 삼고 군대를 파견해 왔으나 유탁이 조정 대신들을 설득시키고 장수들을 보내 그들을 물리쳤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탁은 3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밀직부사에 올라 재추의 반열에 진입하였으며, 40대 중반에 정승에, 이어 53세에서 58세까지 5년간가량 시중으로 재임하였다. 그는 충숙·충혜·충목·충정·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출세 가도를 달렸던 셈이다. 그런데 만

25) 『고려사』 권38 공민왕 원년;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원년.

26)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년에 노국공주 영전의 공역을 중지하도록 건의하였기 때문에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었다. 이때 이색의 간곡한 탄원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탁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던 신돈이 처형되자 그 黨與라는 것 등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는데, 1371년(공민왕 20)으로 그의 나이 61세 되던 해였다.<sup>27)</sup>

유탁은 공민왕대 정치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했었던 것 같으며, 최고의 관직에까지 오른 것도 이 시기였다. 이 당시 유탁은 대부분 재상 혹은 수상으로 재임하며 보냈다. 이를 보면 유탁은 공민왕의 절대적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것은 공민왕이나 고려의 중요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었던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유탁이 그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탁을 뛰어난 군사적 능력에다 오만한 원의 사신까지도 감복시킬 만큼 신중하면서도 예의에 맞는 탁월한 몸가짐으로 朝野에서 두터운 신망을 모았던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평한 것은<sup>28)</sup>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유탁이 투옥되었을 때 이색이 그를 위해 공민왕에게 강력하게 탄원하였다는 것이나 전라도만호 시절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여 고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하였고, 군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공감하였다는 것은<sup>29)</sup> 그의 역량과 조야의 신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했던 유탁이 공민왕에 의해 처형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전라도 군사와 백성을 독점하려 하였다는 것, 유탁이 원의 관리였던 매부에 의지하여 전라도에 만호부를 설치하였다는 것, 노국공주 장례 때에 범절을 박하게 하였다는 것, 신돈의 당여로 활약하였다는 것 등이다.<sup>30)</sup> 그런데

27) 이상 유탁과 관련된 내용은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28)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29)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30)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이 죄목은 유탁을 처형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혐의가 짙다. 공민왕은 유탁이 전라도만호로 근무할 때 여러 공적이 많았다는 것을 참작하여 스스로 교서, 의복, 술 등을 하사하였다는 것, 유탁이 만호부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유탁이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sup>31)</sup> 노국공주 장례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공민왕이 스스로 용서하였다는 것,<sup>32)</sup> 신돈의 당여로 활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공민왕과의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시행했었던 군주로 이름나 있다. 그런데 유탁은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원의 내정간섭이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노골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유탁은 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원간섭기에 수년간 재상과 수상을 역임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와 조부가 원과 연고가 깊었고, 그의 처음 관직이 원나라 숙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일시 원의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충혜왕을 압송해 간 장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아적의 딸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것 등이 그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그가 자신이 모시고 있던 군왕이 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도래할 상황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탁은 1363년(공민왕 12) 최유가 공민왕을 참소한 것만으로도 원이 군대를 보내 왕을 처단하려고 하였다는 것, 그리고 원에서 취했던 충혜왕의 피체·사망사건 등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sup>33)</sup> 아마 이때 유탁은 공민왕의 그러한 정책이 국가적 위기상태까지 도래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유탁은 이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공민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그것은

31) 변동명, 앞의 논문(1989), 133쪽.

32)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33)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공민왕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그러했을 것이고 한편으로 당시 반원적 추세 상황에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탁의 이러한 태도는 공민왕을 실망시켰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탁에 대한 공민왕의 시기심 내지는 경계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유탁은 조야에 신망이 두터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탁을 뛰어난 군사적 능력에다 오만한 원의 사신까지도 탄복시킬 만큼 신중하며 예의에 맞는 훌륭한 조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모았던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평한 것,<sup>34)</sup> 진라도만호 시절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여 고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하였고, 군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공감하였다는 것<sup>35)</sup> 등은 그의 역량과 조야의 신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당시 유탁은 군사권은 물론이고 상당한 권위가 유지되었을 만호패마저 가지고 있었다. 유탁의 위와 같은 평가와 능력은 공민왕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중되어 결국 유탁이 처형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 유탁이 처형되었던 것은 공민왕의 감정 때문이라고 한 것은<sup>36)</sup>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유탁이 노국공주 영전의 공역 중지를 간청드린 것으로 공민왕이 그를 처형하려 했다는 것은<sup>37)</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탁의 죄목을 보면 공민왕이 그를 처형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유탁의 죽음은 공민왕의 의도된 정치적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려사』 유탁전에 그의 죽음이 억울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과 아들 습이 그의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던 흔적에 이어 그가 처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원되었다고 한 것 등은 그것을 말해준다.<sup>38)</sup>

34)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35)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36)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37)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유탁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처형된 후 그의 가문은 상당히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탁의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掩土하였다가 35년 후에 부인 육창유씨의 장례식 때 그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렀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유탁의 가문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그의 아들 습에 의해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습은 유탁의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탁에게는 부인이 둘이었다. 첫째 부인은 27세 때 원나라로 숙위하러 갔을 때 결혼한 朶亞赤의 딸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부는 원나라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으며, 한때 원의 사자로 고려에 와서 충혜왕을 끌고 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9)</sup> 이들 사이에 아들 溇이 있었다. 운은 검교참찬의정부사사를 지낸 인물이다. 유탁은 귀국 후 육창유씨와 중혼하여 슬하에 濕, 澹, 擔 등 3남과 여식 1명을 두었다.

습은 1367년(공민왕 16)에 태어났으며, 10세 때 음사로 영통사진전직과 함문인진사를 제수받았다.<sup>40)</sup> 조선초기 태조대에 상장군,<sup>41)</sup> 태종대에는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는데, 이것은 태종 즉위시 공적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는 1405년(태종 5년) 강원도 도관찰사,<sup>42)</sup> 1408년(태종 8) 우군동지총제,<sup>43)</sup> 1409년(태종 9) 경 충청도 수군도절제사,<sup>44)</sup> 1411년(태종 11) 호분시위사총제,<sup>45)</sup> 1214년(태종 12) 우2번 절제사,<sup>46)</sup> 1416년(태종 16) 이전에 충청도 병마도절제사,<sup>47)</sup> 1417년(태종 17) 경에 도총제,<sup>48)</sup>

---

38)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39) 변동명, 앞의 논문(2009), 151~152쪽.

40)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41)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6월 27일(병인);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42)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7월 8일(신축).

43)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3월 8일(정사).

4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17일(무자).

45)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1월 12일(계유).

46)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7월 25일(무신).



1418년 평안도 도절제사를 역임하였고<sup>49)</sup> 1419년(세종 1년) 5월 좌군 도절제사,<sup>50)</sup> 1419년 5월 중군 도총제가 되었다.<sup>51)</sup> 1419년 7월에는 좌군절제사에 제수되어 의정부 찬성사 이종무 등과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여<sup>52)</sup> 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에 책록되기도 하였는데, 이후 병을 얻어 1439년(세종) 8월에 타계하였다.<sup>53)</sup>

이렇게 유탁의 아들 습은 태조대에서부터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태종의 즉위와 대마도 정벌 등의 공적이 있어 두 번에 걸쳐 공신에 책록되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처형으로 잠시 어려웠던 유탁의 가계가 습부터 예전의 위상을 회복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유습에 대해 武才가 탁월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sup>54)</sup> 무관으로서 자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부 유탁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한다.

습의 동모 동생 선과 담은 특별한 관직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음사에 올랐으나 불행하게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인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탁이 죽고 난 후 그의 가문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습이 조선 초에 크게 활약했었

47)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3월 12일(갑진).

48)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8월 6일(기축).

49)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5월 9일(무오).

50)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4일(무오).

51)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5월 18일(임술).

52)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 7월 7일(경술).

53) 습의 행적이 위와 같은데 그의 줄기에 의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보면 그는 처음에 蔭職으로 합문인진사에 제수되었으며, 조선초기 태조대에 상장군, 태종대에는 원종공신으로 예조·형조·병조·이조전서를 역임하였으며, 전라·충청·평안 3도의 도절제사에 이어 중군 도총제에 승진하였다. 기해년에는 우군 원수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이후 병으로 73세에 타계하였다. 그의 부음을 듣고 조선 조정에서는 백관 회의를 정지하고 조문하였으며, 襄靖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고 한다(『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54)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26일(정미).

던 것은 유탁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태조의 꿈에 유탁이 나타나 아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다는 기록에서<sup>55)</sup> 그러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려 말 유탁과 이성계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마 유탁이 이성계의 정치·군사 활동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지거니와, 이러한 것이 토대가 되어 그가 조선을 창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태조가 유탁을 特進輔國崇祿大夫 高興伯에 추증하였던 것이나<sup>56)</sup> 그의 아들 습이 조선초에 정치적으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sup>57)</sup>

이상으로 유탁 가계의 흐름과 유탁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유탁이 어떻게 하여 여수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장생포가는 어떠한 연유로 탄생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당시 유탁과 여수 지역민과의 관계 내지는 여수 지역사회 동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 Ⅲ. 유탁장군과 ‘장생포가’ 그리고 여수

이번 장에서는 장생포가와 관련된 초기 기록에 대한 사실성과 객관성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그 기록들을 비교·분석해 보고, 장생포가가 탄생되었던 배경을 토대로 하여 당시 유탁과 여수 지역민과의 관계 내지는 사회상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유탁이 여수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전

---

55)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56)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8월 6일(임오).

57) 유탁이 『고려사』 간신전에 수록되었던 유청신의 후손임에도 조선에서 부각되었던 것은 그 시기가 『고려사』를 편찬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유탁이 고려말 태조와 우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선초에 고위 관직을 지냈던 유탁의 자, 습의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유청신의 신원이 일시적으로 복원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라도만호로 근무할 때였으며, 장생포가는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장생포가와 관련된 현전 기록은 다양하다.<sup>58)</sup>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1) “공은 기품이 정민하고 도량이 넓었다. 호화로운 귀족으로 성장하였으나 지조가 청렴결백하고 풍채가 근엄하며, 온화함으로 남을 접대하였다. 담력이 날달리 뛰어난 무재로서 대대로 宣命을 받았다. 3도에 鎭撫를 나갔을 때에는 이르는 곳마다 위엄과 혜택을 끼쳐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존경하였다. 전라도에 나갔을 때에는 왜적이 萬德社에 침구하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갔는데 공이 기병으로 쫓아가서 잡아서 그 노획물을 전체를 탈환해 오므로 공이 있는 동안 왜적이 더이상 침범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長生浦 등을 작곡하여 지금까지 樂部에 전해지고 있다. 조정에 있을 때에는 국사를 경영함에 여념이 없었으며, 언제나 법을 지키고 분분히 변경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정사는 간략하면서도 잘 처리하여 근세의 어진 보필을 말할 때면 반드시 공을 먼저 일컫는다고 한다.”<sup>59)</sup>

-2) “유탁은 ... 공민왕 초기에 외직으로 나가서 전라도만호가 되었는데 가지런히 군사를 정돈하여 위엄을 갖춰 거느림으로써 고을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졸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였다. 왕이 교서를 내려 표창하면서 의복과 술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왜적이 만덕사에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며 약탈을 저지르고 돌아다니 유탁이 가볍게 무장한 기병으로써 뒤쫓아 잡아들인 다음 그 사로잡혀 온 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주었다. 이로 인해 유탁이 주둔하는 동안에는 중내 왜구가 다시 넘어들려 하지 않았다. 스스로 지은 장생포 등의 곡이 樂部에 전한다. ...”<sup>60)</sup>

-3)“(장생포가) 시중 유탁이 전라도에 나가 주둔하면서 위엄을 갖춰 은혜를 베풀

58) 『고려사』 권71 악2 속악 장생포; 권111 열전24 유탁전;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신증동국여지승람』 40 순천도호부 산천 장생포 협주; 『동국통감』 권46 공민왕 원년조; 『대동운부군옥』 권10 장27; 『승평지』 상 산천; 李翊會 撰, 「高麗門下侍中成齋柳先生諱濯墓表」(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115~119쪽); 『성호선생문집』 권8 해동악부; 『강남악부』 고려조; 『증보문헌비고』 106 악고17 속부악1 고려악 속악 장생포; 『임하필기』 권38 해동악부.

59) 『양촌집』 권39 비명류 「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竝序」.

60) 『고려사』 권111 열전24 유탁전.

푸니 군사들이 그를 어렵게 여기면서도 좋아하였다. 왜적이 순천의 장생포를 노략질할 때 유탁이 구원병을 이끌고 나아가자 적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곧장 무기를 거두어 돌아가 버렸다. 군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다.”<sup>61)</sup>

A-1)은 양촌집에 수록되어 있는 「故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이하 비명)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sup>62)</sup> 이것은 권근이 대제학을 지낼 때(1407~1408) 유탁의 아들 습의 부탁을 받고 찬술한 것이다. 이 비명은 장생포가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2)는 『고려사』 열전 유탁전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3)은 『고려사』 중 고려의 속악을 다루는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비명과 열전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즉 왜적이 만덕사에 쳐들어왔을 때 유탁이 군사(기병)를 보내 그들을 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장생포 등을 지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3)의 내용은 왜적이 순천 장생포에 침구하였을 때 유탁이 구원병을 이끌고 나서자 왜구들이 두려워서 돌아가 버렸으며, 이때 군사들이 기뻐서 장생포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기록들을 비교했을 때 지리적 배경과 창작자만이 서로 다를 뿐이다. 비명과 열전에서는 만덕사와 유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약지에서는 순천 장생포(현 여수시 신기동과 안산동 일원)와 군사들이라고 한 것이다.<sup>63)</sup>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왕에 장생포가와 관련하여 논지를 펼 때마다 다양한 이견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위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을<sup>64)</sup> 후대의 기록들까지 착종되어 나타나 그것에 대한 이견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어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수록했을 가

---

61) 『고려사』 권71 악2 속악 장생포.

62) 『양촌집』 권39 비명류, 「故高麗國門下侍中柳公神道碑銘並序」.

63) 이 시기 여수에 현령이 있었음에도 장생포가 순천부 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당시 여수 현이 순천부의 속현 중 하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고려사가 조선초기에 찬술되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시기 행정구역상 여수가 순천부 여수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64) 김준옥, 앞의 논문(1995), 282쪽.

능성이 매우 높다. 두 종류의 자료가 서사의 구조적이거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생포가가 탄생되었던 장소에 대한 것 때문이다. 즉 만덕사와 장생포라는 두 지명을 같은 장소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그러나 만덕사가 장생포 일원에 존재했었던 사찰이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만덕사로 수록된 것은 장생포 일원에 있는 만덕사에 왜구가 침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록했을 것이고, 장생포라고 하였던 기록은 만덕사가 장생포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장생포라고 수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만덕사를 여수 흥국사의 경내에, 위치한다는 白蓮의 명호를 지닌 말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sup>65)</sup> 위와 같은 생각이 잘못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만덕사로 시작되는 사료가 장생포가와 인과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다만 만덕사가 고려 무인정권시기 圓妙國師 了世가 결성하여 이끌던 백련결사의 근본도량이었던 장진의 만덕사라면 결론은 달라진다. 이를 보면 지리적 배경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배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료를 붙들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논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사료에 대한 신빙성과 사실성 여부는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종류의 사료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sup>66)</sup>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비명과 『고려사』 악지의 찬술 방식과 찬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명을 찬술할 때에는 그것을 요청한 이들이 비주와 관련된 자료와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시켜 찬자에게 주면서 간청한다. 그러면 찬자는 그 자료와 비명을 요청한 자들의 구술

65) 김준욱, 앞의 논문(2000), 68~69쪽.

66) 이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위 자료를 제외한 여타 기록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할 것이다. 이 세 기록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한다면 후대 기록의 그것은 자연히 규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까지 덧붙여 비명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탁의 비명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므로 찬자는 비명을 요청한 자가 주었던 자료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 비명은 찬자의 주관적 의견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비명은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비주를 崇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 감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특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비명은 사실적이면서 객관성을 온전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정사인 『고려사』는 찬술 방식 등에 있어 좀 더 객관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사, 예컨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편찬은 수많은 자료를 수집·발췌·비교·검토하여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비로소 관련 내용을 사서에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7)</sup> 어느 사건이나 기록 하나에도 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이 밝혀져 있는 것이다.<sup>68)</sup> 『고려사』 역시 그것은 예외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비명보다는 『고려사』 기록이 객관적이면서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장생포가와 관련하여 동일한 정사에 수록된 악지와 열전이 내용적으로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열전의 내용이 비명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고려사』의 찬술 방식 등을 보면 악지와 열전은 비명보다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열전의 내용이 비명과 거의 동일하니 잠시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악지와 열전에 사용되었던 저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사』의 편찬이 완료되기까지는 6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자료를 수집·발췌하여 편찬에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하고 수록하는 데에 적잖은 인원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67)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86, 29~31쪽 및 40~41쪽; 이강래, 『삼국사기 전기론』, 민족사, 1996, 25~72쪽.

68) 변동명,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2000, 31쪽.

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편찬에 참여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수록된 내용의 문구나 용어 사용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즉 열전을 담당할 편찬자와 악지를 편찬한 담당자가 각각 달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찬자마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도 주요 자료를 달리하여 편찬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마 유탁과 관련된 장생포가의 창작 배경 등이 열전과 악지와 다소 다르게 수록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 열전의 내용 중에는 해당 인물의 묘지명이나 신도비명의 기록을 그대로 傳寫하다시피 한 곳이 적잖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것은 열전을 편찬하면서 사용한 주요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탁전과 그의 비명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열전의 내용은 비명에서 따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이 열전 편찬자의 편찬 성향과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지의 경우 저본이 어떤 것이었을까. 유탁전에서 장생포 등의 곡이 樂部에 전해진다고 한 기록을 주목한다. 이 악부는 고려 속악을 관리하는 樂譜 대장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장생포가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악지 편찬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장생포가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sup>69)</sup>

이상에서 열전의 유탁전은 비명을, 악지는 악부를 토대로 수록하였음을 살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명은 찬술방식이나 찬자의 찬술 태도를 통해 사실성 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보았던 반면, 정사인 『고려사』 열전이나 악지의 경우 나름대로 객관적인 측면이 비명보다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열전의 기록이 비명을 바탕으로 수록되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장생포가와 관련된 내용은 열전보다는 악지의 내용이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주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많은 힘을 쏟기 마련인 비명보다는 다수의 속요를 취급하는 가운데 장생포가를 다루었을 것으로 보이는 악지가 더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69) 악부는 신라말 진성왕대 『삼대목』과 비견되는 것으로, 이곳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와 속요는 장르상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을 수집한 관리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열전의 기록보다 약지의 그것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는 참고할 일이다.<sup>70)</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지에 나타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토대로 다음 논지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한다.

다소의 중복을 무릅쓰고서라도 편의상 『고려사』 약지 장생포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환기한다. 유탁이 전라도만호로 복무하고 있을 때 왜구가 순천 장생포를 노략질 하였는데, 그가 구원병을 이끌고 출동하자 왜적이 그것만을 보고도 곧장 퇴각해버렸으며, 이를 본 군사들이 기뻐하여 장생포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사』 약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약지를 전사한 것이 분명하나 다만 지명을 장생포가 아닌 장성포로 기록되어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성포가 순천부에서 동쪽으로 60리에 위치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약지에 나타난 장성포와 『동국여지승람』의 장생포는 동일한 지역으로 현재 여수시 시전동, 안산동, 소호동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원임이 거의 확실하다.<sup>71)</sup> 조선시기 찬술되었던 수많은 지리지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여하튼 위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장생포가는 현 여수의 장생포 즉 지리적 배경으로 탄생되었음을 알려준다.

지금 이 지역은 일부가 육지화되어 협소하지만 예전에는 현 거북공원 일원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온 적지 않은 포구였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장생포가는 이 일원에 나타난 왜구를 물리쳐 재난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에 유탁 휘하 군사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였다. 기록에는 군사들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들과 지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불려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군사들이란 현역 군인은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시대 백성들의 군역 제도를 상기하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생포

---

70) 이혜화, 「異論을 중심으로 한 ‘動動’論」, 『한성어문학』 2,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3, 80~81쪽.

71) 김준옥, 앞의 논문(2000), 69쪽.



가는 왜구를 물리친 기쁨에 유탁 휘하의 군사들과 지역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널리 회자되었고 마침내 고려사 악지에까지 게재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당시 연안 지역의 대부분이 왜구 침구가 자심하였고 그에 따라 왜구 퇴치 또한 쉽 없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유독 여수 장생포 지역에만 그것과 관련된 노래가 만들어졌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여수 지역과 여타지역의 상황이 좀 더 남달랐기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여수 장생포의 역사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상황 등에 비추어 장생포가와 같은 속요가 이 지역에서 창작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전통시대 여수지역사회 상황부터 살펴본다. 전통시대 여수지역은 외해로 길게 돌출된 나비 형태의 반도와 300여 개의 섬이 제주도 일원까지 펼쳐져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동아시아 한·중·일간의 해상교류상 빼놓을 수 없는 요충지였다. 이 지역이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양환경과 항로 덕분이었다.

동아시아 해류 중 동중국 해안에서 발달한 쿠로시오 해류는 남중국에서 한반도 여수를 비롯한 서남해안과 남해안 및 일본열도까지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발해 및 황해 북부에서 기원하여 중국 서쪽의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중국대륙연안해류는 중국의 북부 및 남부와 여수를 비롯한 서남해안 그리고 일본열도까지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사할린해협에서 내려오는 리만해류는 일본열도에서 한반도 남해안 및 여수를 비롯한 서남해안과 남중국 일원까지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계절풍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로이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 부는 남풍 계열의 바람은 중국 남부 해안과 한반도 서남해안과 여수지역 또는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부는 북풍 계열의 바람은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중부 또는 남부 해안과 그리고 일본의 남부와 서부 해안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계절풍을 이용하여 한·중·일간 혹은 그 반대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서남

해안을 비롯한 여수지역은 반드시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될 항로상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통시기 한반도 여수지역이 해상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이러한 해양환경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다.<sup>72)</sup>

해양환경 등의 이점을 지닌 여수지역은 신석기나 청동기시대부터 해로상 거점지역으로 해상교류·활동이 활발하였다. 뒤이어 백제와 가야가 중국 및 왜와 교류하거나 통일신라가 중국과 교류할 때, 그리고 고려가 중국 또는 일본과 교류할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여수지역은 해상세력가로 건흥의 후백제 건국을 도왔던 김충이나 박영규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였다.

고려말에 이르러 왜구가 창궐할 때에 여수지역은 지정학상 그들의 출입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여타지역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는 왜구의 침구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는 1350년(충정왕 2)에 선박 100여 척 또는 66척을 이끈 왜구가 두 차례나 침범했을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sup>73)</sup> 이 시기 전남지방에서 왜구 침략 횟수가 45회 정도에 이르렀는데, 현 여수지역이 15회로서 1/3가량을 차지하였다는 것도 위 사실을 뒷받침한다.<sup>74)</sup> 이와 관련하여 1350년(충정왕 2)에 왜구의 침구와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고려 정부에서는 순천의 속현이었던 여수지역을 주현으로 승격시켜 왜구의 침입에 대응케 하였던 것은 주목할 일이다. 즉 이것은 여수지역에 왜구의 침구가 자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날 경우 순천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고도 여수 현령을 중심으로 그것을 재빨리 대응케 하기 위한 조치였다.<sup>75)</sup> 여수지역이 왜구

---

72) 전통시기 한반도와 서남해안의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윤명철, 「고대 서남해역의 대외교류」, 『한국의 해양문화(서남해역 上)』, 경인문화사, 2002, 295~318쪽을 참조하였음.

73) “庚辰 倭船六十六艘寇順天府, 我兵追獲一艘, 斬十三級(『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5월).”

74) 류창규, 「고려말 왜구의 침략」, 『순천시사』(정치·사회편),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261쪽.

75) 변동명, 앞의 논문(2009), 161쪽.

가 수시로 오가던 길목으로서 그만큼 해로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조정에서 간파하여 내린 결정이었다.<sup>76)</sup>

13세기 말 왜구의 침구에 대비하기 위해 남해안 일대에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1281년(충렬왕 7) 합포에 설치된 진변만호부와 그 뒤를 이은 전라만호부가 그 대표적이었다.<sup>77)</sup> 이외에 일본과 마주 보이는 경상도 연해에 소규모의 수군진이 설치되었는데, 예외적인 한 곳이 전라도 여수지역에 위치하였던 내례량이었다는 사실 또한 여수지역이 왜구 침범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일이다.<sup>78)</sup> 이렇게 이 지역에 이른 시기부터 수군진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이곳이 해로상의 요충으로서 왜구의 출몰이 자심했었고 한편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시기에 걸쳐 여수지역에는 突山戍, 진례만호, 돌산만호, 좌도도만호, 방답진, 고돌산진 등의 수군기지가 들어섰는데 이 중 일부는 폐진되거나 통합진으로 아니면 위상의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3~4개의 수군진 정도는 이 지역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수지역에서도 장생포는 가장 중요한 포구였다. 장생포는 거리상으로 지근거리인 현 여수 석창 일원에 여수현의 치소가 자리하였기 때문에 여수 해상관문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고려시대 여수지역은 조운의 길목<sup>79)</sup>이자 각종 물산과 조세를 거두어 적재해 놓고 선적하는 물류기지였다. 이것은 무신정권시기 각종 물화와 어패류 등을 싣고 강화도로 가다 침몰한 마도3호선이 여수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서도

76) 여수 현령이 왜구에 재빨리 대응하였다는 내용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여수에 수령을 두었다는 것은 여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천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고도 현지에서 수령이 통제하여 왜구 침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왜구는 여수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77) 변동명, 앞의 논문(1989), 120~121쪽.

78) 이 내례량은 이후 조선 초기 내례만호진에 이어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79) 『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조운.

짐작할 수 있다.<sup>80)</sup> 마도3호선이 여수에서 출발하였다면 그 출항 장소는 당시 이 지역에서 최대의 포구로서 고을 관아와 그 일원을 중심으로 각종 해산물과 곡물을 비롯한 여러 물화들의 유통지였던 바로 장생포였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당시 여수지역에 장생포만큼 상당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제법 번창한 항구의 모습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말에서 조선초 이 장생포는 왜구의 침구를 피해 육지로 온 돌산현의 僑寓處이자 돌산만호수군진의 정박지였다.<sup>81)</sup> 따라서 장생포는 이 시기 여수지역의 사회·경제·행정·군사적인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왜구 침구가 많았던 까닭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구 퇴치를 배경으로 장생포가 창작되었던 장생포는 당시 여수지역에서 가장 변화한 항구였음을 살폈다. 이곳은 물산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해로상의 길목이었다. 왜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침탈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자연 왜구의 침구는 자심했던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생포와 그 일원의 주민들이 받았을 고통은 여타지역보다 배가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왜구의 잦은 침구만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군의 출동도 잦았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때 출동한 관군은 왜구 방어를 빙자한 侵虐이 왜구의 노략질 못지않았을 것이다.<sup>82)</sup> 위 사료 -2)에서 유탁이 전라도만호 시절 “군사들에게 군율을 엄격하게 하여 고을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이것은 당시 군사들의 침학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당시 장생포 일원은 왜구의 침구와 관군의 침학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타지역의 주민들도 그러했을 것이나 장생포와 같이 왜구가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가운데 물

80) 김병근 「여수와 고려시대 마도3호선」, 『해양문화연구』 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4, 149~152쪽.

81) 변동명, 「돌산진과 고돌산진」, 『여수해양사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170~179쪽.

82) 『고려사』 권112 열전25 전록생전.

산마저 풍부한 포구의 경우 그 심각성은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장생포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인물의 출현을 간절히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장생포 지역민을 비롯한 여수지역의 숙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민이 그 같은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유탁이 등장하여 그러한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sup>83)</sup> 이를 본 당시 여수 지역민의 마음에 유탁에 대한 공경심이 어떠했을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당시 유탁의 공적을 충무공 이순신과 비교했다는 것은 주목되는 사실이다.<sup>84)</sup> 장생포가는 그러한 유탁을 숭모하는 차원에서 군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널리 회자되었던 것으로 당시 여수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어떠한 처지였는지 잘 알려주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장생포가와 같은 속요는 향가와 유사하다. 향가는 시와 곡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음악이지만 한편으로 민생의 동태를 살필 수 있으며, 또한 백성을 교화시키는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sup>85)</sup> 속요 역시 그 같은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통시대에 위정자들이 사회상을 엿보려고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채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에도 위정자들이 정치상의 득실을 살피고자 風謠(향가)를 채집하는 일이 있었다는<sup>86)</sup> 것이 그것이다. 이를 보면 장생포가는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았던 가요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은 이 노래가 고려말 지방민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교화시킬 수 있는 典範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장생포가는 유탁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공민왕이 유탁을 처형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83) 이 지역에 현전하는 설화 중 전통시대 때 왜구의 침입 때마다 백마 탄 장군의 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탁장군의 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84) 『강남악부』 고려조.

85) 송은일, 「진성왕대 『삼대목』의 수찬」, 『역사학연구』 27, 호남사학회, 2006, 100~101쪽.

86) 『파한집』 下.

결정적인 것은 전라도 군사와 백성을 독점하려 하였다는 것, 유탁이 원의 관리였던 매부에 의지하여 전라도에 만호부를 설치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이 내용은 유탁이 전라도만호 재임시 상황을 문체 삼은 것이며, 이것은 당시 헌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위 죄목 중에서도 전라도 군사와 백성을 독점하려 하였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에 반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당시 고려 조정에서 어떠한 증거로 유탁에게 운명을 결정짓는 죄목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장생포가의 가사 내용을 토대로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는 장생포가의 탄생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장생포가 가사는 현전하지 않지만 이 노래가 군사와 주민들이 유탁을 숭모하는 차원에서 창작되었다. 따라서 그 노래 가사 내용에는 유탁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불경죄 내지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노래 가사에는 당시 군사들과 여수 지역민이 지니고 있었던 국왕 또는 국가에 대한 불만과 유탁을 칭송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은 유탁을 시기하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국왕 또는 정치세력들에게는 최대의 증거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유탁을 숭모하는 차원에서 창작되었던 장생포가는 유탁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던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IV. 맺음말

유탁의 가계는 시조대부터 현 고흥지방의 지배세력이었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조부인 청신의 활약에 힘입어 고려의 명문가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탁의 가계는 청신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그의 아들 대에도 당대 명문가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유탁은 이러한 명문가에서 1311년(충신왕 3) 청신의 5자 유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3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밀직부사에 올라 재추의

반열에 진입하였으며, 40대 중반에 정승에, 이어 53세에서 58세까지 5년가량 시중으로 재임하였다. 유탁은 충숙·충혜·충목·충정·공민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출세 가도를 달렸던 셈이다. 그런데 만년에 노국공주 영전의 공역을 중지하도록 건의하면서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 하옥되었다. 이때 이색의 간곡한 탄원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탁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던 신돈이 처형되자 그 黨與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시기는 1371년(공민왕 20)으로 그의 나이 61세 되던 해였다.

유탁이 그렇게 된 것은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노국공주 영전의 공역을 중지하도록 건의하면서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던 것도 한몫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유탁은 특히 백성들에게 더욱 신망이 두터웠으며 군사권은 물론이고 국왕에게도 저항할 수 있었던 만호패마저 가지고 있었다. 유탁의 이 같은 능력은 공민왕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였고 나아가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것이 가중되어 결국 처형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장생포가와 관련된 초기 기록에 대한 객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유탁과 관련된 비명, 『고려사』 열전 또는 악지에 나타난 기록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비명은 찬술 방식이나 찬자의 찬술 태도를 봤을 때 내용의 사실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보았던 반면, 정사인 『고려사』 내의 열전이나 악지의 경우 객관성 등에서 비명보다는 우세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열전의 기록이 비명을 바탕으로 수록되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장생포가와 관련된 내용은 열전보다는 악지의 내용이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주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많은 힘을 쏟기 마련인 비명을 바탕으로 찬술한 열전보다는 다수의 속요를 취급하는 가운데 장생포가를 다루었을 것으로 보이는 악지가 더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악지에 나타난 내용을 취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토대로 다음 논지를 이끌어 나갔다.

전통시대 여수지역은 외항으로 길게 돌출되어 있는 나비 형태의 반도와 300여 개의 섬이 제주도 인근까지 펼쳐져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

고 있어서 동아시아 한·중·일간 또는 그 반대의 해상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충지였다. 해양환경 등의 이점을 지닌 여수지역은 신석기나 청동기시대부터 해로상 거점지역으로 해상교류·활동이 활발하였다.

고려말에 이르러 왜구가 창궐할 때에 여수지역은 지정학상 그들의 출입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여타지역보다 더욱 심하였다. 왜구의 침구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는 1350년(충정왕 2)에 왜구가 선박 100여 척 또는 66척을 이끌고 두 차례나 침구했을 정도였다. 이 당시 전남지방에서 왜구 침략 횟수가 45회 정도에 이르는데, 여수지역이 15회로서 1/3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러했기 때문에 고려말에서 조선 시기에 걸쳐 여수지역에 突山戍, 진례만호, 돌산만호, 좌도도만호, 방담진, 고돌산진 등의 수군기지가 들어섰으며, 이 중 일부는 폐진되거나 통합진으로 아니면 위상의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3개 이상의 수군진 정도는 이 지역에 항상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여수지역에서도 장생포는 가장 중요한 포구였다. 장생포는 거리상으로 지근거리인 현 여수 석창 일원에 여수현의 치소가 자리하였기 때문에 여수 해상관문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고려시대 여수 지역 특히 장생포는 조운의 길목이자 각종 물산과 조세를 거두어 적재해 놓고 선적하는 물류기지였다. 고려말에서 조선초 이 장생포는 왜구의 침구를 피해 육지로 온 돌산현의 교우처이자 돌산만호수군진의 정박처였다. 따라서 장생포는 이 시기 여수지역의 사회·경제·행정·군사적인 중심지였다. 이곳에 왜구가 수시로 침구해왔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장생포는 물산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해로상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왜구의 입장에서 침탈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자연 왜구의 침구는 자심했던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생포와 그 일원의 주민들이 받았을 고통은 여타지역 보다 배가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왜구의 잦은 침구만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군의 출동도 잦았다. 이때 출동한 관군은 왜구 방어를 빙자한 침학이 왜구의 노략질 못지않았다. 왜구의 침구와 관군의 침학으로 장생포



일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이 때문에 당시 장생포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고통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어떤 인물의 출현을 간절히 기원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던 중 유탁이 등장하여 그러한 숙원을 해결해주었다. 장생포가는 그러한 유탁을 숭모하는 차원에서 군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널리 회자되었던 것으로 당시 여수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어떠한 처지였는지 잘 알려주는 노래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8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통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 『증보문헌비고』, 『승평지』,  
『과한집』, 『양촌집』, 『강남악부』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86.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大同譜(乙亥本)』, 回想社, 1995.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高興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高興柳氏文獻錄(全)』, 1996.

이혜화, 「異論을 중심으로 한 ‘動動論」, 『한성어문학』 2,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3, 80~81쪽.

이남복, 「유청신과 그 사료에 대하여」, 『부산사학(역사와 경계)』 9, 부산경남사학회, 1985, 130쪽.

변동명, 「고려 충렬왕대의 만호」, 『역사학보』 121, 역사학회, 1989, 119~134쪽.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35, 한국언어문학회, 1995, 280~281쪽.

류창규, 「고려말 왜구의 침략」, 『순천시사』(정치·사회편),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261쪽.

강은경, 「고려 후기 호장층의 변동과 양반 향리호적의 정리-국보호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9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8, 41~42쪽.

김갑동, 「고려시대의 호장」,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1998, 194쪽.

김준옥, 「고려 시대 가요 「장생포」의 창작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62~63쪽.

변동명,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2000, 31쪽.

윤명철, 「고대 서남해역의 대외교류」, 『한국의 해양문화(서남해역 上)』, 경인문화사, 2002, 295~318쪽.

이범직, 「원 간섭기 입성론과 유청신」, 『역사교육』 81, 역사교육연구회, 2002, 133~139쪽.

- 송은일, 「진성왕대 『삼대목』의 수찬」, 『역사학연구』 27, 호남사학회, 2006, 100~101쪽.
- 이명선, 「고려전기 향리의 위상과 기능」, 『한국어 문화』 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화연구소, 2009, 182~202쪽.
- 변동명, 「고려말 여수의 장생포가」,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150~159쪽.
- 김병근, 「여수와 고려시대 마도3호선」, 『해양문화연구』 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4, 149~152쪽.
- 이정신, 「고려후기의 역관」, 『한국중세사연구』 1-38, 한국중세사학회, 2014, 396쪽.
- , 「고려후기 입성론과 국왕의 역할」, 『한국사연구』 1-179, 한국사연구회, 2017, 221~236쪽.
- 李翊會 撰, 「高麗門下侍中誠齋柳先生諱濯墓表」(1833년 9월[순조 33년]~1843년 4월[헌종 9년]).

## Late Goryeo General Yutak and Yeosu

Song, Eun-il

YuTak family has been the ruling power in the present Goheung region since the time of the founder, and based on that foundation, thanks to the activities of his grandfather, Cheongsin, he entered a prestigious family in Goryeo. Due to this background and his own abilities, YuTak served as Jeongseung in his mid-40s and as a cijung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min. However, when Shin Don, who was trusted by King Gongmin, was executed, Yu Tak was accused of being a dangyeo(黨與) and was killed. This is because Yu Tak was highly trusted by the people and even had Manhopae, which was able to resist the king, which made King Gongmin uneasy.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Yeosu area had active maritime exchanges and activities due to its marine environment. Even in Yeosu, Jangsaengpo was a social, economic, administrative, and military center. Therefore, waegu(倭寇) often invaded this place. Because of this, the suffering of Jangsaengpo and the residents of the area was very severe. Accordingly, the residents eagerly prayed for the appearance of a person who could solve the problem. In the meantime, Yu Tak appeared and solved the long-cherished wishes of the residents, such as defeating the waegu. The birth of Jangsaengpoga was naturally created and widely known among soldiers and residents in respect of such Yutak. Therefore, Jangsaengpoga can be said to be a song that tells the story of not only the Yeosu community at the ti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Yutak, and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s.

**keywords :**

YuTak, Goryeo, King Gongmin, Yeosu, Jangsaengpoga

